

조선시대 전기(前期)의 여러 수의학서(獸醫學書)

14세기 소·말관련 獸醫書 발간

조선시대의 수의학(獸醫學)은 우리나라 농학의 여러 분야 중 가장 앞서서 발전한 분야였다. 주곡(主穀) 중심의 농사직설(農事直說)보다도 30년이 앞선 1399년에 「신편집성마의방 부우의방(新編集成馬醫方 附牛醫方)」이라는 수의서(獸醫書)가 인간(印刊)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1~3권은 마의(馬醫) 관계이며 제4권은 우의(牛醫) 관계를 다루고 있어 총체적으로 보면 마의 중심의 수의서다. 전의소감(典醫少監) 방사량(房士良)의 서문에 따르면 왕의 인자하신 뜻이 짐승에게도 미치도록 하고자 이 책을 지었다 하였으나, 이태조가 먼저 마의서를 편찬토록 한 것은 자신이 무인(武人) 출신이었다는 점과 그 무렵 말(馬)이 국방상 가장 요긴한 무기의 한가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중국의 백락(伯樂)이 저술한 고전을 비롯, 원(元)대의 여러 마의서에서 유효한 수의술을 초록하고 우리나라의 경험을 보탠 것으로 개간(開刊)이 된 것은 정종(定宗) 원년이였다. 이 책은 연도 미상의 중종조에 인간된(갑진활자) 2권1책을 비롯, 선조 13년(1580년)의 전주목(牧)판본, 광해군 8년(1616년)의 의주(義州)개간본,

인조 11년(1633년)의 제주개간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책은 그 후, 소(牛)의 중요성이 차츰 중요해지자 말보다 소를 앞세워 책이름도 「신편집성우마의방」으로 바꾸고 내용에 변동은 없으나 편찬 순서를 우의방(牛醫方)을 제1권으로 편찬한 것도 있다. 이중 전주개간의 목판본은 임진왜란때 일본이 가져가 조선우마의방(朝鮮牛馬醫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가타가나로 토를 달아 그들의 수의학 교재로 사용한 바 있다.

15세기 전염병치료법 소개

이 「신편집성마의방」 이외에 「안기집(安驥集)」이라는 마의(馬醫)서가 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사복시(司僕寺) 소속의 육품(六品)직인 마의(馬醫) 시험을 치를 때 출제 교재로 사용한 것이나 본래 당(唐)대 이석(李石)이 편찬한 중국농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종 25년(1494년)에 마의술의 확산을 위해 왕명으로 한글로 번역출판한 바 있으나 실전(失傳)되었고, 또 중국의 조부(造父)가 7세기에 저술한 「수우경(水牛經)」도 같은 해 성종의 명으로 번역한 바 있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고 있다. 「수우경」을 번역한 까닭은 세조 8

년(1462년)에 유구(琉球)에서 물소(水牛) 한쌍을 진상한 바 있는데 세조 이후 연산군 때까지 약 40년간 이를 번식시켜 보급한 바 있어 이 무렵 물소 의술의 번역본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1541년에 서둘러 편찬한 「우양저염역병치료방(牛羊猪彘疫癘治療方)」이다. 소, 양, 돼지에 관한 전염병 치료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세가지 짐승은 다 같이 발톱이 두개인 우제류(偶蹄類)에 속한다는 면에서 오늘날 유럽제국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고 작년 우리나라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구제역(口蹄疫)을 다룬 수의서가 아닌가 믿어진다. 구제역은 발톱이 두개인 짐승이나 들짐승에게만 전염되기 때문이다. 중종 36년(1541) 2월 평안도에서 일시에 4천6두의 소가 전염병으로 죽고 이어서 3월에는 황해도와 경기도 그리고 12월에는 강원도와 함경도 등 한반도 중북부 일대를 휩쓸어 소와 들짐승까지 전멸하다시피 되자 그 해 11월 경기도 광주(廣州)의 인의(人醫)들이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처방 중 효과가 있었던 처방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이 책을 허둥지둥 엮은 것이라고 믿는 까닭은 효과적인 처방이 개발되었

우리나라의 수의학 관련서적은

주곡 중심의 농사직설(農事直說)보다 30년 앞선 1399년에

「신편집성마의방 부우의방(新編集成馬醫方 附牛醫方)」이 나왔다.

그 후 소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1616년에 「신편집성우마의방(新編集成牛馬醫方)」으로 바꾸어 출간하는 등 조선시대의 수의학은 농학의 모든 분야중 앞서서 발전했다.

다는 경기도 관찰사의 보고가 그 해 11월 초에 있었는데 좌승지 권응창(權應昌)이 이 책의 서문을 쓴 날짜가 그 해 11월 25일이기 때문이다.

비록 35쪽의 간략한 책자이고 초판은 종이사정 때문이었는지 겨우 19부 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나마 화급하게 출간 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기민성이다.

한자표기열에 이두(吏讀)풀이

여기서 특기할 것은 이 책의 표기방식이다. 먼저, 한자(漢字)로 처방을 풀이하고 같은 내용을 다시 이두(吏讀)로 풀이하였으며 이를 또 다시 한글로 풀이하였으니 세번 반복한 셈이다. 동일 언어를 쓰는 국민에게 세번 반복된 풀이를 교재로 만든 것은 우리 농서(農書)사상 이 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이러한 예는 아마도 세계 서지사(書誌史)에도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할 것이다. 참고로 간단한 처방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本文) : 又方水煮千金木與葉待冷灌口
(吏讀) : 又方千金木(火乙羅毛 븐나모) 果葉果乙以水煎煮待冷牛口良中灌注爲好事

(한글) : 또 한 방문네븐 나모와립기를
므레글허츄 거둔 이베브오라
(또 한가지 처방에 북나무(千金木)
가지와 잎을 울에 끓여 식혀든 병든소
(牛疫)의 입을 벌리고 먹이라는 뜻)

이는 전염병이 불길 번지듯하는데 당시 문자를 이해하는 계층이 서로 달라 한(漢)문체만 아는 계층, 이두체만 아는 계층, 한글체만 아는 계층 등을 두루 충족시키고자 편찬하다보니 이러한 복합문체의 구차한 편찬방식이 된 것 것으로 믿어지며 그런 면에서 당시 지도층의 고민이 반영된 책이라 볼 수 있다. 이 책은 다음 해 1차 북간본이 나왔고 또 가축의 질병이 만연하자 선조 11년(1578년)에 2차 북간본이 나왔는데 이 2차 북간부터 말(馬)이 추가되어 책의 표제가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이 되었다. 인조 14년(1636년) 8월에는 해주에서 3차 북간본이, 동년 9월에는 4차 북간본인 교서관(校書館)본이, 5차 북간본은 인조 22년(1644)에 인간되었는데 그때마다 가축의 전염병이 만연하자 유일한 대책이 이 책의 인간 배포였다. 그 후, 인조 12년(1634년)에는 「신각침의참보마경대전(新刻針醫參補

馬經大全)」이 훈련도감에서 인간되었는데 춘, 하, 추, 동의 4집 4권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끝에는 최명길(崔鳴吉)의 발문이 있는데, 그 내용은 태복시(太僕寺)의 제조(提調)인 이서(李曙)가 중국의 마의서를 구해와 자신에게 발문을 청했다는 것이나 중국의 원전은 어느 때 누가 편찬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또 병자호란이 나던 인조 14년(1636년)에는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가 편찬되었는데 이는 「신각침의참보마경대전」에서 요긴한 내용만을 초록하고 이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상, 하 두권으로 되어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論는馬有유父부母모라. 모 에부모이 심을의논흠이라.

(부모가 있다는 말은 곧 혈통이 있다. 유전을 한다는 육종학적 개념임)

이와 같이 조선조 전(前)기만 하여도 마의 중심의 여러 가지 수의학서들이 있었으나 오늘날의 수의학도들에게 학통상 선행학문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㉞

金榮鎭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